

해양에너지, 에너지 신산업 인재 양성 힘 보탠다

동신대에 1000만원 기부...2021년부터 매년 전달 미래 산업 이끌 실무형 인재 육성 위한 지원 확대

㈜해양에너지가 지역 우수 인재 양성과 미래 에너지 산업 발전을 위해 동신대학교에 발전기금 1000만원을 기부했다. 동신대학교는 지난 15일 대정도서관 3층 누리2실에서 ㈜해양에너지와 발전기금 기부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동신대학교 이주희 총장과 송경용 대외협력부총장, 안민주 학생취업지원처장, 김진갑 사무처장을 비롯해 ㈜해양에너지 정희 대표이사, 오광호 안전관리본부장, 조명근 ESG경영본부장, 박정훈 팀장 등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협약식에서 정희 대표이사는 에너지 신산업 분야의 우수 인재 양성에 힘써달라며 이주희 동신대 총장에게 발전기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 ㈜해양에너지는 지난 2021년부터 매년 동신대학교에 발전기금을 기탁하며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이번 기부를 포함한 동신대학교 누적 기부액은 6000만원에 이른다. 동신대학교는 AI를 미래 성장 동력으로 삼아 교육 혁신을 추진하고 있으며, RE100 탄소중립을 비롯한 에너지신산업 특성화와 지역 연계 산학협력, 엔지니어링 등을 통해 미래 산업을 선도할 실무형 인재 양성에 힘쓰고 있다. 이번 발전기금 역시 AI 활용 역량을 갖춘 RE100 탄소중립을 실현할 에너지 신산업 분야 우수 인재 육성을 위해 활용



㈜해양에너지는 지난 15일 동신대학교 대정도서관 3층 누리2실에서 발전기금 기부 협약식을 개최했다.

될 예정이다. 이주희 동신대 총장은 “지역의 대표적 인종합에너지기업인 해양에너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지역 인재 양성의 든든한 동력이 되고 있다”며 “해양에너지

의 친환경 정책 방향과 일맥상통하는 RE100 탄소중립 실천 인제와 AI 활용역량을 갖춘 핵심 인재, 실무역량과 인성을 두루 갖춘 투게더형 인재 양성을 통해 성원에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정희 해양에너지 대표이사는 “동신대학교가 학생이 행복한 대학, 나를 키워주는 대학을 기치로 내걸고 우수 인재 양성에 주력하는 것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며 “이번 발전기금이 학생들의 성장과 도전

에 작은 디딤돌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기업으로서 인재 육성과 지역 발전을 위한 동행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나주=조현천 기자 pose007@gwangnam.co.kr

정경남 효령노인복지타운 본부장,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노인 인권증진·이용자 중심 복지환경 조성 공로

정경남 광주 효령노인복지타운(이하 효령타운) 본부장이 지난 15일 광주시노인보호전문기관이 주관한 ‘제10회 노인학대예방의 날’ 기념식에서 노인인권증진 유공자로 선정돼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이번 표창은 노인 인권 보호와 권익 증진,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다양한 복지사업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여됐다.

정경남 본부장은 2022년 8월 효령타운 본부장으로 취임한 이후 어르신이 존중받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인권친화적 복지환경 조성에 힘썼다. 특히 평생교육 프로그램 확대와 스마트폰·키오스크 활용 교육 운영 등을 통해 디지털 환경에

대한 적응을 지원하고, 어르신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와 정보 접근성 향상에 기여했다. 또 오손도손체험마을사업단, 스마트 디지털지원사업단, 전통놀이강사단 등 다양한 노인일자리를 운영해 어르신들의 사회참여와 경제활동 기회를 확대했다.

이외에 시설 환경개선과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추진을 통해 어르신 중심의 안전하고 편리한 복지환경 조성에 힘썼다.

여기에 회원들의 고충과 건의사항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개선하는 현장 중심의 소통행정을 실천하며, 이용자 권익 향상과 복지서비스 품질 제고에 기여해 왔다. 정경남 본부장은 “어르신들이 존중받



정경남 광주 효령노인복지타운 본부장이 지난 15일 광주시노인보호전문기관이 주관한 ‘제10회 노인학대예방의 날’ 기념식에서 노인인권증진 유공자로 선정돼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앞으로 노인일자리 등 다양한 노인복지사업을 운영하며 지역사회와 어르신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효령타운은 평생교육, 건강증진,

다. 글=사전=최기환 기자 bluesky@



광주교통공사는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 추진한 양동시장역 외부 엘리베이터 설치공사를 최근 완료하고 개통했다.

광주교통공사, 양동시장 상인회 감사패 받아

양동시장역 EV 개통...교통약자 이동권·상권 활성화 기여

광주교통공사는 최근 양동시장 상인회로부터 양동시장역 외부 엘리베이터 설치공사 완료에 대한 감사의 뜻을 담은 감사패를 전달받았다고 16일 밝혔다.

공사는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 추진한 양동시장역 외부 엘리베이터 설치공사를 최근 완료하고 지난 1일 개통했다. 이로써 광주도시철도 1호선 전 역사에 대한 ‘1역사 1통선’ 구축이 최종 마무리되며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이 한층 강화됐다.

그동안 양동시장역은 도시철도 1호선 역사 가운데 유일하게 외부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지 않은 역사로, 노약자와 장애인 등 다양한 교통약자의 이용에 불편이 있었다. 또한 양동시장 방문객들의 접근성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엘리베이터 개통으로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가 크게 향상된 것은 물론, 양동

시장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와 지역상권 발전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양동시장 상인회 관계자는 “양동시장역 엘리베이터 설치공사를 성공적으로 추진해 고객 편의와 접근성을 크게 향상시켰다”며 “공사 기간 중에도 상인과 이용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세심한 배려와 책임감 있는 자세를 보여준 데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문석환 광주교통공사 사장은 “시민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뜻깊은 감사패를 받게 되어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임산부 등 교통약자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이용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승홍 기자 photo25@gwangnam.co.kr



신안군은 최근 신안군가족센터에서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회장 박재홍)와 함께 ‘서로! 같이! 레드하모니 학교’ 졸업식과 ‘천사하모니 봉사회’ 결성식을 개최했다. 사진제공=신안군청

신안군, 결혼이주여성 전문봉사단 출범

안정적 지역사회 정착·사회참여 확대 지원

신안군은 최근 신안군가족센터에서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회장 박재홍)와 함께 ‘서로! 같이! 레드하모니 학교’ 졸업식과 ‘천사하모니 봉사회’ 결성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결혼이주여성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운영된 ‘서로! 같이! 레드하모니 학교’ 교육 과정의 마무리와 함께, 교육 수료생들이 주체가 돼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실천하는 전문 봉사조직을 출범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 관계자와 신안군협의회 봉사원, 신안군가족센터 관계자, 레드하모니 학교 졸업생 20명 등 100여명이 참석해 졸업생들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했다.

레드하모니 학교는 대한적십자사 신안군지부협의회와 협력해 운영한 결혼이주

여성 정착지원 프로그램으로, 결혼이주여성과 적십자 봉사원을 1:1 멘토-멘티로 연결해 상호 교류와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새롭게 출범한 ‘천사하모니 봉사회’는 레드하모니 학교 졸업생들로 구성된 다문화 전문봉사단으로 지역축제와 행사 통역 지원, 다문화가정 정착지원, 재난 발생 시 통·번역 안내, 문화교류 프로그램 운영, 취약계층 나눔 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활동을 펼쳐나갈 예정이다.

봉사회 회장으로 선출된 김성규씨는 “레드하모니 학교를 통해 자신감을 얻고 소중한 인연도 만들 수 있었다”며 “앞으로는 도움을 받는 사람을 넘어 지역사회에 도움을 주는 봉사자로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겠다”고 밝혔다.

신안=이훈기 기자 leek2123@gwangnam.co.kr



행사에 참여한 시민들이 풍선기둥 쌓기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사진제공=나주시청

나주시 ‘가족축제-한마음 운동회’ 성료

300명 참여...다채로운 프로그램 운영

가족의 소중함을 되새기고, 공동체 화합의 의미를 나누는 ‘2026 나주시 가족축제-가족 한마음 운동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16일 나주시에 따르면 최근 나주종합스포츠파크 다목적체육관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 지역민 300여명이 참석했다.

‘생생~ 패밀리 데이, 가족 한마음 운동회’를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는 가족 간 소통과 화합을 증진하고 건강한 가족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사전 진행된 ‘가족 릴스 챌린지’ 영상 상영을 시작으로 개회식과 유공자 표창(5가족)에 이어 풍선기둥 쌓기,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에어사다리 릴레이, 불꽃공 던지기 등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

됐다. 참가 가족들은 승패를 떠나 서로를 응원하고 협력하며 다양한 체험과 게임에 함께 즐기는 과정에서 가족의 소중함과 화합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겼다.

현재 나주시는 가족친화도시 조성 및 건강한 가족문화 확산을 위해 가족센터를 중심으로 부모교육, 가족돌봄 자원사업 등 다양한 가족지원 정책과 가족 참여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윤병태 시장은 “가족은 우리 삶의 가장 든든한 울타리이자 소중한 공동체”라며 “어린이·산모 병원 추진 등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 및 함께 모든 세대가 행복한 가족친화도시 나주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나주=조현천 기자 pose007@gwangnam.co.kr

곡성읍교회, 지역사회에 바자회 수익 나눔

불우이웃 돕기 성금 800만원 기탁 ‘훈훈’

대한예수교장로회 곡성읍교회가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바자회 수익금 800만원 전액을 곡성읍에 기탁하며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

16일 곡성군에 따르면 곡성읍교회는 최근 곡성읍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불우이웃 돕기 성금 800만원을 전달했다. 이번 성금은 지난 5월 20일 곡성읍교회 1층에서 열린 ‘불우이웃 돕기 바자회’를 통해 마련된 수익금 전액이다.

바자회에는 의류, 생활용품, 건어물, 떡거리 등 다양한 품목이 판매됐다. 특히 교인들과 지역 주민들이 함께 참여해 나눔의 의미를 더했으며,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따뜻한 마음이 모여 총 800만원의 수익금이 마련됐다.



박병준 위임목사는 “이번 바자회는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함께 돌아보고 사랑을 나누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며 “마련된 성금이 꼭 필요한 이웃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곡성군 관계자는 “지역사회를 위해 뜻깊은 나눔을 실천해 주신 곡성읍교회와 성도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기탁해 주신 성금은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소중히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곡성=김유빈 기자 hnnews1@